

포스코대우,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 '청신호'

베트남 최대 곡물기업 편통과 MOU

포스코대우가 베트남 최대 곡물기업 편통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곡물사업 확대에 나선다. 2020년까지 곡물 1000만톤(t) 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쓰영 시 바 편통 회장과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통과 곡물 트레이딩(교역) 물량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베트남에 공급하는 사료 곡물 물량을 200만t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 전체 사료 곡물 수입시장의 약 10%를 점유하는 규모라고 포스코대우는 설명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편통과의 첫 거



포스코대우는 14일 베트남 편통사와 곡물 트레이딩 물량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왼쪽)과 편통사 쓰영 시 바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래 이후 지금까지 120만t의 옥수수·밀·주정박 등 사료의 원료 곡물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산 쌀·돈육·가공육에 대한

수출 협력을 진행하고, 향후 배합사료의 제조·유통·미곡종합처리장 공동투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하우시스,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보수 지원

LG하우시스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산안창호기념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며 애국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LG하우시스에 따르면 도산안창호기념관은 독립협회에 가입해 자주독립과 국정개혁을 주장한 대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신민회, 흥사단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창호 선생의 생애 기록과 사진, 유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이 위치한 도산공원에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해련 여사의 묘소가 있다.

LG하우시스는 1998년 개관 후 20년이 지나 노후된 기념관의 1층 전시실 및 지하 강당의 바닥재와 인테리어필름 등을 교체하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0주기를 맞아 새롭게 단장한 기념관을 통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과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 계승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5년부터 애국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현충시설 개보수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 서재필기념관, 매현윤봉길기념관, 우당이회영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만해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총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고, 국가유공자 및 국내외 참전용사 14명의 자택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손태승 우리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 김우룡 동래구청장(앞줄 왼쪽 네번째), 장동출 동래구장애인협회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이 지난 14일 부산 동래지점에서 열린 '은행장과 함께하는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銀 부산 동래지점,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부산 동래지점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장동출 동래구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미로 동래구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전동휠체어를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 했다.

우리은행 동래지점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 상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부산

지역 상인에게 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1918년 설립돼 100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기념사에서 손태승 은행장은 한세기 동안 우리은행 동래지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함께해 온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동래구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전동휠체어 5대 구입자금을 기부했다. /양상미 기자 smahn1@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 있는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오진영 서울지방법보훈청장, 김장성 LG하우시스 CHO 상무,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재개관식을 위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늘의 운세 8월 16일 (음 7월 6일) <http://www.saju4000.com>

<p> 쥐 4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0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72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84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미덕인 날.</p>	<p> 말 54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 운은 있다. 6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78년생 뒷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날이다. 90년생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싱싱해지고 기쁨을 못 잡는다.</p>
<p> 소 49년생 바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온다. 6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7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음먹기 나름. 85년생 오랜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p>	<p> 양 55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67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픈 마음이 든다. 79년생 만나서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91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p>
<p> 호랑이 50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62년생 명에는 높아지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하루. 74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 86년생 약점은 말하는 순간 더 크게 변해 버리는 법.</p>	<p> 원숭이 56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68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고 양보하는 것도 좋다. 8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92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을 살피라.</p>
<p> 토끼 51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웃고 우산이 필수. 63년생 자식이 제 배필을 데려오니 흡족하다.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8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p>	<p> 닭 57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차이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69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피하라. 8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3년생 고집을 피우면 가족도 외면.</p>
<p> 돼지 52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64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76년생 마음먹은 대로 직진. 88년생 산도 좋고 물도 맑으나 편하게 실 것은 못 되니 마음이 아프다.</p>	<p> 개 58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준다. 70년생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 게도 좋게 돌아옴을 명심. 82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94년생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p>
<p> 뱀 5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65년생 병이 온 듯하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7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다. 89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하니 좋은 평가를 받는다.</p>	<p> 돼지 59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1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3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95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p>

김상회의 四季

인연법과 사주의 상관성

얼마 전에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진언을 소개한 적이 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 사이의 인연법은 천륜이니 잠시 차치를 하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관계가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에 있어 교감하게 되는 인연은 나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인연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식견으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은 세상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 돈 돈 돈 하면서 돈을 바라지만 큰 재물이 생겨도 자신이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돈이 변하여 마구니가 되어 재앙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유명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되기 위해 인기를 갈구하지만 막상 그렇게 갈망하던 유명인이 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행동적 제약이 유명세의 몇 갑절이 되는 것이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일어섰지만 그 대중의 기대를 계속 유지하고 부합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어서 유명 연예인은 삶은 마치 유리집 속의 인형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만사를 들여다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행과 불행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진정한 행복이란 소욕지족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불가의 인연법에 의하면 오백생을 거쳐서 쌓은 인연이라야 부부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했다.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낳고 잘 살다가도 인연법이 다하면 이런 악연이 어디 있나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없으면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사랑을 쏟았던 자식들도 머리들이 크면 부모들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형제자매들 역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때조차 만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를 어찌 각박해진 시대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인연법의 오묘함이 사주명조를 들여다보면 형제간의 우애나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호오가 분명하다. 어느 시기쯤에 인연법이 다하거나 좋아지거나 하는 것도 읽을 수 있으니 역의 오묘함에 탄복할 뿐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2	8		7	1		
	7							5
	8							4
5	4		1				8	9
		9			6			
	9	4		5		7	2	
8			2		4			3
			1	3	9			

								4
	4			1			8	7
			4	3	7			2
	3	7			6			9
6		8						3
	5	4			9			2
			6	4	8			9
	6			9		3	4	
								6

스도쿠 정답

7	9	8	6	5	1	3	2	4
6	5	7	4	2	9	1	8	3
1	2	3	8	5	9	7	6	4
2	1	9	5	8	7	6	4	3
6	8	2	9	1	4	5	7	3
5	7	4	2	6	1	8	9	3
2	5	7	9	6	8	1	4	3
9	6	1	2	7	8	3	5	4
8	4	6	1	2	5	9	7	3
9	8	2	5	1	6	4	1	7
2	7	9	6	1	5	8	3	4
6	1	5	8	7	9	4	2	3
8	2	9	6	1	4	5	7	3
5	2	4	7	1	8	6	9	3
1	6	7	9	8	5	1	4	2
2	9	6	1	4	7	8	5	3
5	2	8	1	6	9	7	4	3
7	4	1	5	9	8	2	6	3

문제 제공= **보너스**